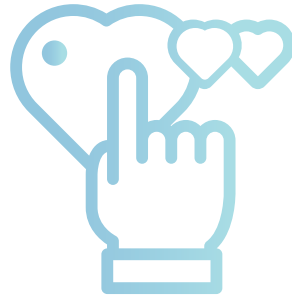


인생 브레이크와 만남, 예술로 거듭난 희망의 기록



 **중부일보**

강소하 기자



도로 위를 달리던 차의 속도가 타인의 브레이크에 의해, 혹은 나의 의지에 따라 줄어들고 정체가 됐을 때, 우리는 보통 분통을 터뜨리거나 좌절의 기분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그 시점은 평소 질주하느라 놓쳤던 주변의 풍광을 즐기는 또 다른 나만의 시간이 된다. 어떤 문제건 좀 더 넓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십수 년 전 나는 인생의 거대한 브레이크 앞에 멈춰 섰다. 만성 피로로 인한 검사 결과 기도 확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됐고, 얼마 후 수술은 진행됐다. 건강해지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수술 후의 고통은 생각보다 너무나 컸다. 알약 하나 넘기기도 힘들었고, 말을 하는 것 자체도 힘에 겨웠다. 일주일이면 괜찮아지겠지 했던 마음은 허사가 되었고, 의사소통이 막혔을 때의 답답함에 화가 나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말하

고 먹는 것이 불편한 것 말고는 오히려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 그때 나에게 준 선물은 평소 관심이 있었던 주제와 관련된 온라인 강연을 듣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무렵 만났던 단기 청소년쉼터 아이들과의 인연은 쉽사리 잊히지 않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나는 문화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아주 특별한 기술을 배웠다. 그것은 바로 ‘맥간아트’, 즉 보리줄기를 펴서 이어붙이고, 오리고 붙여 작품을 만드는 보리아트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것이다. 다행히 조금은 손재주가 있던 덕분에 작가와 함께 전시도 하고, 시간이 허락되면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여자단기 청소년쉼터로부터 특강 요청을 받았고, 어떤 주제로 아이들과 만나면 좋을까 고민했다. 그렇게 나는 아이들 앞에서 내가 쓴 에세이 ‘인생 브레이크’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느낌을 그림으로



'백간아트 이수진 작가 & 여자단기청소년센터 프로젝트전' 개막식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음료수로 건배를 하고 있는 모습

완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

그곳에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삶의 브레이크가 걸린 20여 명의 아이가 모여 있었다. 가정폭력으로 마음이 부서진 아이, 빈곤 때문에 뛰어난 재능을 접어야 했던 아이들. 그들에게 삶은 시원하게 뿜 풀린 달리고 싶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원치 않는 사고로 꽉 막힌 정체 구간인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인생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을 땐, 당장 현실의 모습만 보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자. 도로 옆 벚꽃도 보고 하늘도 보자”라는 식의 이야기를 건넸던 것 같다. 처음에는 냉소적이었던 아이들의 눈빛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부드럽게 변해갔다.

강연이 끝나고 진행된 그림 그리기 시간. 나를 감동의 도가니에 빠트리는데

벌어진단. 한 아이가 내가 에세이에서 묘사했던 그 멈춤의 풍경 속에 나의 모습을 그려 넣은 뒤 “얼마나 힘드셨어요?”라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넨 것이다. 길가 양옆으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아름다운 도로 위에 한 갈래로 머리를 묶고 있는 내가 운전석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것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가슴 떨림이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훅 들어온 그 아이의 말과 행동이 어찌나 예쁘던지. 그 맑은 시선에 보답하기 위해 나는 기자이자 작가로서 무언가 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샘솟았고, 이들을 위한 전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다.

아이들을 만나고 나니 일회성 특강으로 끝내기엔 그들의 가능성이 너무 아까웠다. 무엇보다 뭔가 성취감을 맛볼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맥간아트 이수진 작가 & 여자단기청소년센터 프로젝트전’ 개막식

나는 보리아트 이수진 작가와 의논한 끝에 8주간의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아이들이 기초부터 하나하나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다.

지도 강사로서 아이들과 마주 앉아 보릿대를 펴고, 작품으로 완성해 가는 시간은 분명 치유의 과정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기자의 시선을 피하며 얼굴을 가리기 바빴던 아이들은 어느새 마음을 열어주었다. 보리줄기를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했지만,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자세로 임했고, 전시회의 주인공이 된다는 설렘으로 한껏 기대에 부푼 모습이었다. 특히 예술적 소질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안 사정으로 꿈을 포기했다던 한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장래 희망을 공예 작가로 바꾸고 싶다는 고백을 해오기도 했다. 나는 그때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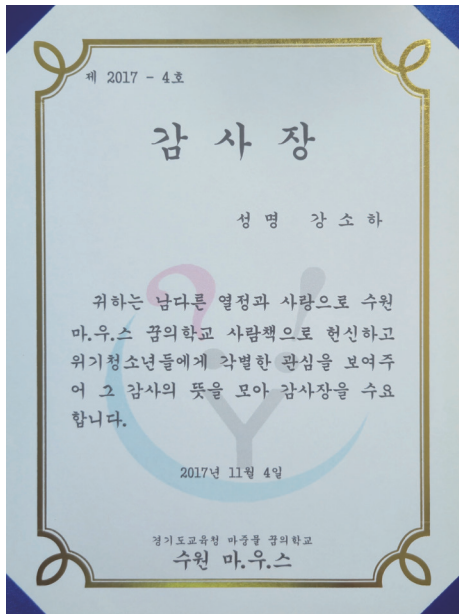
짝이던 그 아이의 눈동자가 아직도 눈에 선하다.

8주간의 인내 끝에 우리는 마침내 ‘어비움’이라는 복합문화공간에서 전시를 열게 된다. ‘맥간아트 이수진 작가&여자단기청소년센터 프로젝트전’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전시에서 우리는 그룹 작품 5점과 학생들의 개성이 담긴 작품 13점을 선보였다. 드디어 전시의 막이 오르던 날, 아이들은 여전히 쑥스러워하며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전시장 구석을 찾는 듯 했지만, 막상 테이프 커팅선 앞에 선 얼굴에는 무언가 해냈다는 뿌듯함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이때부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관객들이 작품 앞에 서서 질문을 던지자 아이들이 신나게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미 얼굴을 가리기에 급급했던 아이들이 아니었다. “정말 너무 좋았어요”라며



'맥간아트 이수진 작가 & 여자단기청소년센터 프로젝트전' 테이프 커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환하게 웃는 얼굴로 기념사진을 찍던 아이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다.



단기청소년센터 활동 후 받은 감사장

그로부터 1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날의 기억이 자리 잡고는 가끔씩 위로를 건네며 나를 미소 짓게 한다. 우리는 모두 세상살이에서 예기치 못한 브레이크를 만난다. 누군가는 질병으로, 누군가는 가난으로, 또 누군가는 관계의 실패로, 그 이유는 수없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 멈춤 속에서도 긍정의 힘으로 숨은 가치를 찾는다면 그 시간은 반드시 선물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 나와 아이들이 보릿대를 통해 만들어 낸 기적 같은 일화처럼 말이다.

저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자의든 타의든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브레이크가 아닐까. 무언가를 원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되지 않아 지



청소년들의 공동작품과 개인별 작품이 전시돼 있는 모습

체되거나 취소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 직장생활을 했지만 그만둬야 할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게다가 삶이 내 뜻대로 살 아지지 않는다고 여겨질 땐 실망을 하기도 하고 좌절감을 맛보기도 한다. 또한, 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아픔들이 참 많기도 하다. 하지만, 결국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 마음을 고쳐먹으면 될 일 이다.

어쩌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멈춤이 란 신호를 보내오는, 무수히 많은 문제와 맞닥뜨리면서 저마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 하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인생의 브레이크는 우리를 멈추게 하 는 방해물이 아니라, 우리 삶에 숨은 가치

를 찾을 수 있는 ‘쉼표’ 같은 의미 있는 시 간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우리 모두가 어 떤 브레이크 앞에서도 마음껏 행복해질 수 있기를, 꼭 막힌 도로 위에서도 하늘 을 보고 주변의 풍광을 돌아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려 “멈춰 서 보니까 역시 더 좋네”라고 말할 수 있 는 마음의 여유를 챙길 수 있기를 말이다. 그리고 새삼 나의 에세이를 배경으로 그 립을 그리고, 그 안에 환하게 웃는 얼굴로 운전대에 앉아 있는 나를 주인공으로 만 들어 준 그 아이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 보겠노라고 다짐해 본다. 누군가 삶의 브레이크에 걸려 주저앉아 있다면, 따스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 해야겠다. 🙏

중부일보 강소하 기자